

기출세포99
공무원 국어

적중률 99%

주제별 기출 분석서

기출을 푸는 이유는, '경향 분석, 전략 학습, 단기 합격'에 있다.

14일 만에 끝낼 기출세포 99 국어정복의 찬스~!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0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 현주가 취직이 되었는데. ㉠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야.
- 지금 사는 ㉡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 재는 우리가 싫어했던 ㉢ 저것이 마음에 든대.
- 어르신, 제가 ㉣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 ① ㉠: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이, 그, 저’ 중에서 ‘이, 그’는 앞 문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다. ‘이, 그, 저’는 각각 근칭, 중칭, 원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화자에게 가까운 쪽, ‘그’는 청자에게 가까운 쪽, ‘저’는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떨어져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곳을 가리킨다. ‘이것, 그것, 저것’, ‘이분, 그분, 저분’도 같다.

- ① “현주가 취직이 되었는데. ㉠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야.”에서 ‘㉠ 이’는, 앞 문장 “현주가 취직이 되었는데.”를 받아서 그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가리킨다. ‘㉠ 이’가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함은 옳다. 한편 이때 ‘이’의 품사는 대명사이다.
- ② “지금 사는 ㉡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에서 ‘㉡ 그’는, 화자와 청자 모두 아는 대상 ‘지금 사는’을 지시하며,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운 쪽을 가리킨다. ‘㉡ 그’가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함은 옳지 않다. 한편 이때 ‘그’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미며, 조사를 붙여 쓸 수 없다.
- ③ “재는 우리가 싫어했던 ㉢ 저것이 마음에 든대.”에서 ‘㉢ 저것’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떨어져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화자도 알고 청자도 아는 내용을 지시한다. ‘㉢ 저것’이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함은 옳지 않다. 한편 이때 ‘저것’의 품사는 대명사이다.
- ④ “어르신, 제가 ㉣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에서 ‘㉣ 저’는,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떨어져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곳을 가리킨다.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위치한 대상을 지시한다.

‘㉢ 저’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함은 옳지 않다. 한편 이때 ‘저’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뒤에 오는 체언 ‘건물’을 꾸민다.

02

다음에 고려한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 주제: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목적: 북촌 한옥 마을, 이화 마을 등의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②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을 분석한다.
-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98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글쓰기 관련 문제이다.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지 그 여부를 묻고 있는 유형이다. 주제는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개선 방안’을 실어야 한다. 선택지를 보면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① 북촌 한옥 마을, 이화 마을 등의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같은 유사한 경우를 외국에서 찾아보고, 외국의 정책 사례를 조사하면서 미리 알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내는 것은 위 주제와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고 함은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다.
- ②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거주민에게 미친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 방안을 찾는 보고서 작성이다.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을 분석한다.”라고 함은,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 현황을 보여 줄 수 있으나, 위 주제와 목적을 고려한 작성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

답이다.

- ③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거주민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위 주제와 목적에 맞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함은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다.
- ④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도 보고서에 답아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고 함은 위 주제와 목적을 고려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다.

03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쓰인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 낯선 이의 집에서 숙식을 ㉠ 붙인다.는 것은 분명 힘에 ㉡ 부치는 일로 보였다. 오늘은 측은한 마음에 말을 ㉢ 붙여 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표를 ㉣ 부치고 있을 뿐이었다. ㉤ 붙여 먹을 땅 한 평 없던 아버지 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 붙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266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붙이다’에는 ‘붙게 하다’의 의미가 있는 반면, ‘부치다’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 ‘부치다’는, 용언 ‘붙다’의 어간 ‘붙-’에 접미사 ‘-이-’를 결합하고 있지만 그 뜻이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피동이나 사동의 형태로 인식되지 않아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부치다’는 한글맞춤법 제57항에 따라 ‘붙이다’와 구별해야 할 단어이다. 제시문에서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쓰인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② ㉠, ㉡, ㉥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 낯선 이의 집에서 숙식을 ㉠ 붙인다(× ⇨ 부친다)는 것은 분명 힘에 ㉡ 부치는 일로 보였다. 오늘은 측은한 마음에 말을 ㉢ 붙여 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표를 ㉣ 부치고(× ⇨ 붙이고) 있을 뿐이었다. ㉤ 붙여(× ⇨ 부쳐) 먹을 땅 한 평 없던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 붙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숙식을 붙인다(× ⇨ 부친다)”에서 ‘부치다² 통사’는,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를 뜻한다.
- ㉡ “힘에 부치는 일”에서 ‘부치다¹ 통사’는,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를 뜻한다.
- ㉢ “말을 붙여 보았지만,”에서 ‘붙이다 통사’는, ‘말을 걸거나 치근대며 가까이 다가서다.’를 뜻한다.
- ㉣ “우표를 부치고(× ⇨ 붙이고)”에서 ‘붙이다 통사’는,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를 뜻한다. 한편 ‘편지를 부치다’에서 ‘부치다² 통사’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를 뜻한다.
- ㉤ “붙여(× ⇨ 부쳐) 먹을 땅”에서 ‘부치다³ 통사’는,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를 뜻한다.
- ㉥ “정을 붙였던 사람”에서 ‘붙이다 통사’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를 뜻한다.

04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은? 2019 지방직 7급

보살은 자기 자신이 불경의 체현 내용인 보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일체의 타인에게도 그의 진리를 체득시키고자 정진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한과 같은 자리(自利)를 위하여 보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이타(利他)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나한이 개인적 자각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적 자각에 입각한 것이니, 나한은 언제든지 개인 본위이고 개인 중심주의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 본위이고 사회 중심주의인 것이다.

- ① 유추
② 묘사
③ 예시
④ 대조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72쪽, 473쪽, 474쪽, 475쪽, 479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설명 방식’은, 곧 ‘서술 방식’, ‘진술 방식’과 같다. 여기에는 시간적 개념을 고려한 ‘동태적 방법’으로 ‘서사, 인과, 과정’ 등이 있고, 시간적 개념과는 무관한 ‘정태적 방법’으로 ‘지정/정의, 분류/구분, 비교/대조, 예시/인용/유추, 묘사’ 등이 있다.

- ① ‘유추’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잘 알려진 것에 빗대어 서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목적 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글을 보면, 잘 알려진 것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론하는 논리 전개 방식 '유추'를 쓰고 있다. '인생'과 '마라톤'은 범주가 이질적인 대상이지만, 두 대상의 특수한 공통점(목적 : 목표)을 발견하여 다른 점에서도 두 대상이 지닌 공통점(성공 : 완주)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묘사'는 구체적 형상을 갖추고 있거나 감각적 인식이 가능한 대상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잎은 어긋나게 불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뾰죽기를 감싼다."와 같이, 식물의 잎이 줄기에 나는 모습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서술하는 방식이다.

③ '예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화시켜 그 사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일반적 진술의 내용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여닫다, 우짚다, 검푸르다, 검붉다, 뛰놀다, 설익다, 부슬비 등은 일반적인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법과 어긋나게 형성된 낱말의 예라 할 수 있다."와 같다.

④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맞대어 차이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이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자리(自利)를 위하여 ↔ 이타(利他)를 위하여', '개인적 자각 ↔ 사회적 자각', '개인 본위, 개인 중심주의 ↔ 사회 본위, 사회 중심주의'와 같이 '나'와 '보살'을 맞대어 그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의 앞 문장에서는 "보살은 ~하는 인간이다."라는 '정의' 방식을 썼다. '정의'는 사물이나 개념의 의미를 간결하게 밝혀 그 속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이다.

05

다음 글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7급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거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도덕적으로 응징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 훼손은 물론,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③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1쪽, 462쪽, 464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발문에서 찾고 있는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곧 주제이다.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연결해 보면,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나온다. 제시문의 두 문단에서 접속부사를 찾고, 서술어 중심으로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문단)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개인의 신상 정보 공개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다. 누리꾼들의 요구가,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려해야 한다.

(둘째 문단)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 요약문을 보면,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접속부사 '따라서' 다음에 있다. '정보를 공유할 때 개인 정보의 악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한 선택지를 고르면 ④이다.

①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함을 첫째 문단 '사회적 정의 실현의' 긍정적인 가치'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접속부사 '그러나'를 볼 때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주장함은, 둘째 문단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대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접속부사 '따라서' 다음에 중심 내용이 있으므로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도 아니다.

③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함을 둘째 문단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결론에 대한 전제일 뿐이지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함을 둘째 문단 접속부사 '따라서'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와 같이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 정답이다.

①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②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0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9 지방직 7급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건물들이 일정한 축이나 질서에 의해 배치되고, 그 중간 부분에 크고 작은 마당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려진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물이 왜소하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 그리고 장식적 요소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겸손의 건축'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

- 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②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
-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다.
- ④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과 같은 발문의 문제를 풀 때에는 선택지 중에서 3개가 옳은 지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이 요령이다. 선택지를 요약하면, 한국 전통 건축은 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이다, ②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③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다, ④ 곡선에서 찾은 것은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와 같다. 여기에서 ‘한국 전통 건축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면 ①②③은 하나의 맥락에 있지만 ④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④가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찾으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독해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이다. 실제 정답인지 확인하려면 제시문에서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과 관련한 어구를 찾아본다. 둘째 문단 후반부에 있다.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를 보면 ④가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각 선택지별로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 선택지는, 첫째 문단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라는 대목을 통해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이 선택지는, 역시 첫째 문단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라는 대목을 통해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이 선택지는, 둘째 문단 “자연에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라는 대목을 통해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이 선택지는, 둘째 문단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라고 함은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다. 정답이다.

07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7급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에서 -

- ① 肝膽相照
- ② 磨斧爲針
- ③ 昏定晨省
- ④ 孤掌難鳴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174쪽, 177쪽, 180쪽, 181쪽, 18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간담상조 肝膽相照 : 간과 쓸개가 서로를 잘 보여 주듯이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는 뜻한다.
 - ② 마부위침 磨斧爲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한자성어이다. 속담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와 같다.
- “여섯 달이 지난 후 시험에 합격한 수진이는 자신도 처음엔 책 두

계를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는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다. 2018 소방직 9급

③ 혼정신성 昏定晨省: 저녁이면 주무실 자리를 정해 드리고 아침이면 주무신 자리를 돌봐 살핀다는 뜻이다. ‘효도’의 뜻을 담고 있는 한자성어로,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이다.

④ 고장난명 孤掌難鳴: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렵거나,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협력의 필요’를 일컫는 한자성어이다.

08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 ① 부장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 ② 어머니님,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 ④ 시장님, 저에게 여쭙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9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국어의 높임 표현은 크게 주체높임법, 상대높임법, 객체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높임법은 화자가 서술의 주체에게,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객체높임법은 화자가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다. 주체높임법은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으로 다시 나뉜다. 간접높임은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련된 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부장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에서는 간접높임법을 쓰고 있다. ‘부장님’의 ‘넥타이’처럼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부장님’을 간접적으로 존대하고 있다. ‘어울리네요’에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결합하여 ‘어울리시네요’로 표현함으로써 ‘간접높임법’을 적절하게 잘 썼다.

② 주체높임법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법으로, 여기에는 직접높임법, 간접높임법, 압존법, 이중서술어의 사용법 등이 있다. 그중 압존법은, 높임법에서, 어른에 대한 공대를 그보다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머님,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에서는 압존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시부모 등 남편 손윗사람에게 남편을 말할 때 “아비(아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와 같이 낮추어 표현하는 경어법에 해당한다. 주어진 문장의 높임 표현은 그 쓰임이 적절하다.

③ 화자가 서술의 주체에게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주체높임법은 선어말어미 ‘-(으)시-’, 조사, 동사, 명사 등에 의해 실현된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에서는 주격조사 ‘-께서’와 선어말어미 ‘-시-’를 써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다.

④ ‘여쭙어보다’는 ‘물어보다’의 높임말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물을 때에 쓴다. “시장님, 저에게 여쭙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에서는 ‘시장님’이 ‘저’보다 윗사람이므로 ‘저에게 여쭙보셨던’을 ‘저에게 물어보셨던’으로 고쳐 적어야 적절하다. 정답이다.

0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
- ② 나는 사과를 천 원어치 샀다.
-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
-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284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에서 밑줄 친 ‘열시쯤’은 ‘수관형사 + 명사 + 접미사’의 구성으로, ‘열’은 수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쓰지만, ‘-쯤’은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접미사 ‘-쯤’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알맞은 한도, 그만큼가량’의 뜻을 더한다.

② “나는 사과를 천 원어치 샀다.”에서 밑줄 친 ‘천원어치’는 ‘수관형사 + 명사 + 접미사’의 구성으로, ‘천’은 수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쓰지만, ‘-어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접미사 ‘-어치’는,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뜻을 더한다.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에서 밑줄 친 ‘스무살남짓’은 ‘스무살남짓’으로 띄어쓰기를 고쳐야 맞다. ‘수관형사 + 의존명사 + 의존명사’의 구성으로, ‘스무’는 수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쓰며, ‘남짓’은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의존명사 ‘남짓’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낸다.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에서 밑줄 친 ‘이십세기경’은 ‘수관형사 + 명사 + 접미사’의 구성으로, ‘이십’은 수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쓰지만, ‘-경’은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접미사 ‘-경(頃)’은, 시간이나 날짜 따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뒤에 붙어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의 뜻을 더한다.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7급

(7)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ㄱ)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써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써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널 빅예 아즐가 널 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느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에서 -

- ① ㉠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 ② ㉠의 ‘河’와 ㉡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
다.
- ③ ㉠, ㉡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
다.
- ④ ㉠과 ㉡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
고 있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538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가)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는, ‘임을 여인 슬픔’을 노래한 4언4구의 한역 시가이다. ‘물’의 상징적 의미(사랑-이별-죽음)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公無渡河 (공무도하)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공경도하)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갔네.

墮河而死 (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柰公何 (당내공하) 이제 임이여 어이할꼬.

(나) 작자 미상, 「서경별곡」은, 여성 화자가 이별을 거부하고 애정을 강조한 고려가요이다.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셔울히 마르느,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로 시작하는 「서경별곡」은 14연 구성(내용 기준 3개 단락)이다. (나)는 9~14연(내용 기준 3번째 단락)에 해당하며, ‘떠나는 입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다. ‘아즐가’는 감탄사이며,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는 후렴구이다.

대동강이 아즐가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이하 후렴구 생략)

배를 내어 아즐가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아즐가 네 아내가 음란한 줄을 몰라서

떠나는 배에 아즐가 떠나는 배에 내 임을 태웠느냐? 사공아.

대동강 아즐가 (내 임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면 아즐가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① ㉮의 「공무도하가」에서 시적 화자는, ‘물을 건너지 마오.’ 말했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시니’, 임을 여윈 슬픔을 노래한다. 임과 동행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 ㉮의 「서경별곡」에서 시적 화자는,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네 아내가 음란한 줄을 몰라서’라고 사공에게 말하면서 임과 이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임과 이별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㉞의 「공무도하가」에서 ‘河’는, 그 상징적 의미가 公無渡河(공무도하-‘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 公竟渡河(공경도하-‘화자와 임의 이별’), 墮河而死(타하이사-‘임의 죽음’)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만나는 것’을 돕는 매개가 아니다. ㉞의 「서경별곡」에서 ‘강’은, 사랑의 공간인 ‘서경’과 이별의 공간인 ‘대동강 건너편’의 경계로, 화자와 임을 단절하는 매개로 쓰였다. 따라서 ㉞의 ‘河’와 ㉞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공무도하가」에서 시적 화자는,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 갔네.”를 통해서 벌어질 상황(임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의 「서경별곡」에서 시적 화자는, “(내 임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를 통해서 벌어질 상황(임이 다른 여인에게 정을 줄 것 같은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 ㉮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의 「공무도하가」에서 시적 화자의 상대방인 백수광부가 보이는 반응은 “기어이 물을 건너” 죽음으로 내달리는 비극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의 「서경별곡」에서 시적 화자가 사공에게 “네 아 내가 음란한 줄을 몰라서 / 떠나는 배에 내 임을 태웠느냐?”라고 말하면 사공이 열린 집으로 가볼 것 같고, 그렇게 해서라도 임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 희극적 분위기를 읽을 수는 있지만, 시적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와 (㉡)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짖 참이었? 이자를 생각해 봐! 놀랄 것이 무엇이?

연철: (비꼬는 투로) 놀랄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았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못이라고? 저놈이 어따 대고 비양질이야?

곰치: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치: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치: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자네 섬섬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었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덕: (떨쩍 뛰며) 뭘! 큰 말씀이시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예?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치: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 천승세, 「만선」에서 -

- ① ㉠: 체념 조로
-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 ③ ㉢: 지친 듯
- ④ ㉣: 애걸 조로

정답 ②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162쪽, 53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천승세(1939~) 극작가의 희곡 「만선」은, 남해안 어촌을 배경으로 「만선」에 대한 곰치의 집념을 보여주는 향토적이며 사실적인 성격의 비극이다. 3장 6막 구성으로, “칠산 바다에 부세 때가 몰려들고 악덕 선주 임제순에게 빚 독촉을 받는, 가난한 어부 곰치는 불리한 계약을 선주 임제순과 맺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아들 도삼과 딸 슬슬이의 애인인 연철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거센 풍랑에 배가 뒤집혀서, 곰치는 도삼과 연철마저 잃고 돌아온다. 곰치의 아내 구포덕은 아들 도삼의 죽음에 실성하고, 곰치는 바다를 버리지 못한 채 만선을 꿈꾸며 어린 아들마저 어부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구포덕은 어린 아들을 빈 배에 태워 물으로 보내고, 슬슬이는 애인 연철을 잃고 임제순의 하수인 범쇠에게 시집갈 처지가 되자 자살을 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이 작품은, 토속적인 현실 속에 소외된 민중의 삶을 그려냈다.

희곡의 형식 요소는 ‘해설(=전치지문)’, ‘대사’, ‘지문(삽입지문)’이 있는데, 위 제시문의 전치지문을 보면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주어진 문제는, 등장인물의 대화를 읽으면서 ‘곰치’의 심리를 미루어 찾아내는 유형이다. 위 작품을 모르더라도 전치지문, 삽입지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등장인물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면 ㉠~㉣에 들어갈 지시문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유형이다. 또한 발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므로 선택지 셋은 적절하다는 점에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전치지문을 보면 어부 ‘곰치’는 선주 ‘임제순’에게 빚을 지고 있다. ㉠ 앞에서 ‘임제순’의 삽입지문 “(발끈해서)”, ‘연철’의 삽입지문 “(비꼬는 투로), (불같은 한숨)”을 보면 ‘곰치’가 ㉠에서 “(체념 조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체념 조로’는,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② ‘성삼’은 ‘곰치’의 친구이다. ‘곰치’가 딸의 애인인 ‘연철’에게 “다들 입을 봉해!”라고 말하자 이에 ‘성삼’이 ‘곰치’에게 한 말에 대해 “시끄러웠!” 말하였다. 그런데 ‘성삼’도 “(오기스런 안간힘)”을 쓰며 선주 ‘임제순’에게 대항한다. ‘곰치’가 ‘성삼’에게 “㉡: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였을까, 그렇지 않다. 따라서 “㉡: 비아냥거리는 투로”는,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희곡 원문에 따르면, 삽입지문은 “(신경질적으로)”가 맞다. 정답이다.

③ ‘곰치’가 ‘성삼’에게 친구이니까 “(신경질적으로) 시끄러웠!” 말하는 상황에서, 선주 ‘임제순’이 “곰치!” 하며 부른다. ‘곰치’는 “말씀하시게라우.....”라며 말하는데, 이때 ‘곰치’의 심리는 선주 ‘임제순’에게 지쳐 있었을 것이므로 그 대사의 어조가 ‘㉢: 지친 듯’인 것은 맞다. 따라서 ‘㉢: 지친 듯’은,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④ ‘곰치’의 대사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앞에서 선주 ‘임제순’은 “(강경하게)” 빚을 청산할 때까지 배를 묶는다고 말한다. 곰치의 아내 ‘구포덕’은 “(떨쩍 뛰며)” 말하고, 다시 선주 ‘임제순’은 “(단호하게)” 말한다. ‘곰치’의 심리는, 선주 ‘임제순’에게 배만은 묶지 말라고 애걸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 애걸 조로’는,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12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7급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가 컸다.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	㉢	㉣
①	시행	격차	기반	고양
②	시행	편차	기반	지양
③	중단	격차	방식	지양
④	중단	편차	방식	고양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06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제시문에서 ㉠~㉡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문맥에 맞는지 그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언어 정책이 (㉠)되었다.”, “문장과 방언 사이의 (㉡)가 컸다.”, “모스크바어를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 “민주 의식이 (㉣)되면서”을 보면, ㉠에는 ‘시행’인지 ‘중단’인지, ㉡에는 ‘격차’인지 ‘편차’인지, ㉢에는 ‘기반’인지 ‘방식’인지, ㉣에는 ‘고양’인지 ‘지양’인지를 판단하는 유형이다. 단어의 쓰임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끝 문장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에서 ‘표준어 형성’, ‘국어의 통합’이라는 부분을 보면,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정책이 ‘(㉠ 시행)되었다고 봄이 문맥상 맞다. 여기에서 ㉢㉣는 답이 아니다.

㉠ 첫째 문장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은 근대 국가 형성 당시 단일하지 않은 언어에 차이가 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러시아의 경우에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가 컸다.”로 연결할 때 ㉠에 들어갈 말이 ‘격차’인지 ‘편차’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격차(隔差)’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떨어져 다른 정도’를 뜻하며, ‘편차(偏差)’는 ‘수치, 위치, 방향 따위가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나 크기’를 뜻

한다. 이를 구별하면, 언어의 차이에는 ‘편차’보다 ‘격차’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을 더 살펴보면 옳더라도 정답은 ㉠이다.

㉠ 셋째 문장 “모스크바어를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에서는 ㉠에 들어갈 말이 ‘기반’인지 ‘방식’인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②를 놓고 보면 ‘기반’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반(基盤)’은 ‘기초가 되는 바탕’을 뜻하므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여기에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을 뜻하는 ‘방식(方式)’을 넣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

㉔ 다섯째 문장 “민주 의식이 (㉔)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에서도 ㉔에 들어갈 말이 ‘고양’인지 ‘지양’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고양(高揚)’은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을 뜻하고, ‘지양(止揚)’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언어 정책이 (㉠ 시행)되었다.”,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 격차)가 컸다.”, “모스크바어를 (㉢ 기반)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 “민주 의식이 (㉣ 고양)되면서”와 같다. 따라서 정답은 ‘㉠ 시행 격차 기반 고양’이다.

13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7급

⑦ 별 헤는 밤

㉔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㉔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㉔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부터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울산광역시 생활과학고실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여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 축제이다. … (하략)

- ○○신문, 2000. 00. 00. -

보기

신문기사에서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대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② ㉡: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③ ㉢: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④ ㉣: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98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신문기사는 표제, 전문, 본문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전문'에 관한 내용을 <보기>에 담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신문기사의 일부에 표시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의 "별 헤는 밤"은, '대한민국 별 축제'를 문학적으로 쓴 헤드라인(headline), 곧 '표제'에 해당한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전문'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라고 설명함은 적절하지 않다.

②㉡의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압축하여 표현한 부제목으로 '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라고 설명함은 적절하지 않다.

③㉢의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는, 언제(11일과 12일 저녁) 어디에서(울산과 부산에서) 무엇을(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 한다고 핵심 내용을 요약한 리드(lead), '전문'에 해당한다. 육하원칙 중에서 '왜', '어떻게', '누가'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몇몇 요소로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라고 설명함은 적절하다. 정답이다.

④㉣은,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누가) 11일 오후 5시부터(언제)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어디에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무엇을) 연다."와 같이 ㉣의 '전문'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본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함은 적절하지 않다.

14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뿔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520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이성부(1942~2012) 시인의 「봄」은, 부조리한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형상화한 자유시이다. 시인은, 전남 광주 출생으로, 남도의 향토색과 저항적인 현실 참여를 바탕으로 한 서정적인 작품을 주로 썼다.

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에서 보듯이 특정한 시어 '온다'를 반복함으로써 봄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시적 화자는, "너는 온다."처럼 단정적인 어조로 자신이 기다리는 '봄'의 도래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시적 화자는, 16행 구성의 이 시의 1~2행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봄은 당연히 온다는 것을, 3~10행에서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봄이 온다는 신념을, 11~16행에서 봄을 '두 팔을 벌려' 맞이하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는 희망적인 상황을 단정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다.

④ 시적 화자는, "기웃거리다가 /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에서 보듯이 '봄'을 '너', '사람'으로 인격화하여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굵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세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다.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보그,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6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추론’이라고 함은, 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추론적 이해에서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적절히 생략하거나 요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숨어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주어진 추론적 이해의 문제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의 발문에 따라 선택지의 중심 어구를 먼저 보면, ‘① 불변은 없다.’, ‘② 변화 과정에서 영향이 크다.’, ‘③ 변함이 없었다.’, ‘④ 변화가 일고 있다.’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②④는 ‘변화가 있다’, ③은 ‘변화가 없다’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③을 답으로 찍을

수도 있다. 물론 실제 정답인지 보려면 선택지 ③의 적절성 여부를 제시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시문의 셋째 문단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를 토대로 추론한다면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이 변함이 있었던 것이므로 ③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론적 이해는 제시문을 사실적으로 읽은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판단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제 각 선택지가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선택지는, 제시문의 첫째 문단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굵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라는 대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함은 적절한 추론이다.

② 이 선택지는, 제시문의 첫째 문단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라는 대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함은 적절한 추론이다.

③ 이 선택지는, 제시문의 셋째 문단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라는 대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함은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정답이다.

④ 이 선택지는, 제시문의 셋째 문단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라는 대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함은 적절한 추론이다.

16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태어날 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판해서 ㉢ 염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는 내면을 드러내는 인상이 바뀔 수 있다.

	㉠	㉡	㉢	㉣
①	殞命	自書傳	厭世的	成實
②	運命	自書傳	鹽稅的	成實
③	殞命	自敍傳	鹽稅的	誠實
④	運命	自敍傳	厭世的	誠實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208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주어진 문제는 제시문에서 밑줄 친 단어인 '㉠ 운명', '㉡ 자서전', '㉢ 염세적', '㉣ 성실'의 한자를 표기하는 유형이다.

㉠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에서 ‘운명’은, 문맥적 의미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뜻한다. ‘운명’의 한자는 ‘돌다 運, 목숨 命’, 運命으로 표기한다. 한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을 뜻하는 ‘운명’의 한자는 ‘죽다 殞, 목숨 命’, 殞命으로 표기한다. 이때 예문으로는 ‘형은 아버지의 殞命을 보지 못했다.’를 들 수 있다.

㉡ “톨스토이의 ㉡ 자서전적 작품”에서 ‘자서전’은, 문맥적 의미로 ‘작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를 뜻한다. ‘자서전’의 한자는 ‘스스로 自, 차례 敍, 전하다 傳’, 自敍傳으로 표기한다. 한편 ‘자서’를 自書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때 自書는 ‘자기가 직접 쓴 글씨’를 뜻하는 自筆과 동의어이다.

㉢ “무척 비판해서 ㉢ 염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염세적’은, 문맥적 의미로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염세적’의 한자는 ‘싫다 厭, 세대 世, 과녁 的’, 厭世의으로 표기한다. 한편 ‘소금 鹽, 세금 稅’, 鹽稅로 표기하는 ‘염세’는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뜻한다.

㉣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는”에서 ‘성실’은, 문맥적 의미로 ‘정성스럽고 참됨.’을 뜻한다. ‘성실’의 한자는 ‘정성 誠, 열매 實’, 誠實로 표기한다. 한편 ‘이루다 成, 열매 實’, 成實로 표기하는 ‘성실’은, ‘곡식 따위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음.’을 뜻한다.

17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오네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솥 세발솥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 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들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길길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달다가 그만 들판의 구멍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멍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똥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똥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똥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뢰나.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결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똥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諷)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애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들겠느냐?”

- 박지원, 「호질」에서 -

-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던지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2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연암 박지원(1737~1805)의 「호질(虎叱)」은, 호랑이를 통하여 도학자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는 내용으로, 『열하일기』에 실려 있는 한문 단편소설이다. '북곽 선생, 과부 동리자, 다섯 아들, 범'과 같은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하여 허위적이고 이중적인 도덕관을 풍자하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다.
- ② 위 글에서 북곽 선생은, 동리자에게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솥 세발솥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아(興也)라."라는 시(詩)를 읊어 주면서, 동리자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를 내보인다. 따라서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낚아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 ③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라는 대목을 보면 '범'을 의인화하고 있다. "내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 이든겠느냐?"면서 북곽 선생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④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諷)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라며 범이 북곽 선생을 꾸짖는 대목에서 '유(儒)'와 '유(諷)'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선비는 아침한다 하더니'라면서 북곽 선생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18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2019 지방직 7급

-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③ 요즈음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정답 ③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18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에서 '투고한 원고'는 '원고'라는 의미 중복이 있다. '의뢰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내다.'라는 뜻을 지닌 '투고하다'에 이미 '원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투고한 원고'를 '보낸 원고'로 고쳐 적어야 맞다.
-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에서 '도보로

걸었다.'는 '걷다'라는 의미 중복이 있다.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이라는 뜻을 지닌 '도보'에 이미 '걷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도보로 걸었다.'를 '걸었다.'로 고쳐 적어야 맞다.

③ "요즈음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에서는 의미 중복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정답이다. 한편 '절반'과 관련하여 '절반 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의미 중복이 없으나, '과반수 이상'으로 쓰는 경우 의미 중복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에서 '탄 승객은'은 '타다'라는 의미 중복이 있고, '자매결연을 맺은'은 '맺다'라는 의미 중복이 있다. '탈것을 탄 손님'이라는 뜻을 지닌 '승객'에는 이미 '타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버스 안에 탄 승객은'을 '버스 안에 탄 손님은'으로 고쳐야 맞다. 또한 '자매의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지닌 '자매결연'에 이미 '맺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자매결연을 맺은'을 '자매결연을 한'으로 고쳐 적어야 맞다.

19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지방직 7급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들 이등(伊藤)의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등이 한국에서 주재하며 대한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줄거리만을 말하고자 한다. ... (중략) ...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증오해 마지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답 ④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찾는 문제이다. 제시문을 먼저 본 후에 선택지의 진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유형이다.

① 제시문의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라는 대목을 보면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들은 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문의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라는 대목을 보면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문의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라는 대목을 보면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라는 대목을 통해 안중근 의사가 이등의 시정 방침이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시문의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일본인도 그러하거늘,”라는 대목을 보면 안중근 의사가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이다.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지방직 7급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기출세포 99 공무원 국어」 463쪽

▼ 문제해설 스타일의 반란 ▼

① 제시문에서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라는 대목을 보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외부의 강압이 있는 경우이므로 언어 자살 현상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다.

② 제시문에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라는 대목을 보면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없었고, 이 때문에 언어 자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제시문에서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목을 보면 ③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제시문에서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라는 대목을 보면 ④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